

오는 18일 '생명결사' 봉행될 낙단보 미리 가보니...

“부처님도 상생의 자비심 발원”

조계종이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국민과 사회·시대정신을 함께하는 한국 불교를 만들겠다고 발원했다. '자성과 쇄신 결사'가 그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행·문화·생명·나눔·평화의 5대 결사(結社)운동을 시작했다. 오는 18일에 4대강 사업 낙동강 낙단보 공사 현장에서 실시하는 '생명살림 환경보호 및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1080배 정진도 결사의 일환이다. 지난 8일 그 현장을 미리 찾았다.

서울에서 약 4시간을 달려온 낙단보 공사 현장. 경북 상주와 의성, 구미 사이를 지나는 낙동강 상류에 낙단보가 있었다. 흘러야 할 강은 세상을 향해 말문을 닫은 것처럼 꽁꽁 얼어 있었다. 그 자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차차했다. 부처님도 보금자리를 잃은 생명들을 더이상 두고만 볼 수만은 없었나 보다. 지난해 10월 4대강 사업 낙단보 공사현장에서 마에

로 가지정 되었지만, 시급히 보존 방안을 찾아야 했다. 마에부처님은 평생의 터전을 잃고 시름하는 중생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 듯 했다. 지난 8일 낙단보 마에불 현장에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해국스님을 만났다. 구미 대둔사에 주석하고 있는 스님은 매일 부처님이 모습을 드러낸 지난해 부처님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



낙단보 공사 중 발견된 의성 생송리 마에보살좌상이 낙동강이 변해가는 모습을 묵묵히 내려다 보고 있다. 지난 8일 마에불을 찾은 대둔사 해국스님이 참배를 하고 있다. 의성=김형주 기자 cooljoo@bulgyo.com

생명 결사 실천의 첫 발걸음, 낙단보엔 상처입은 마에부처님 낙동강 굽어보며 1080배 정진대중 조용히 기다리는 듯 해국스님 매일 마에불 찾아 기도정진

부처님이 발견된 것이다. 이곳은 40여 년 전 도로확장공사를 한 곳으로 부처님은 자갈과 흙으로 덮여 있었다. 마에불 발견 직후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마에보살좌상을 참배했다. 특히 총무원장 스님은 문화재 훼손과 발견 사실 은폐 의혹을 낳고 있는 보살상 머리 왼쪽 부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했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그나마 이 만큼 온전히 보존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마에부처님은 현재 중요문화재

다. 해국스님은 “무분별한 개발로 마땅히 보존되어야 할 부처님이 훼손됐다”면서 “훼손된 원인과 선후관계를 밝혀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오랜세월 터를 잡고 살아온 못 생명들도 갈 길을 잃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조계종은 오는 18일 낙단보 공사현장을 찾아 생명 살림의 가치를 실현하는 1080배 정진을 실시한다. 이날 1080배 정진은 생명 결사의 구체적인 실천행의 하나로 남을 닦기 보다는 모두 다 함께 살 수 있는 상생과 참회의 길을 찾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생명들이 본성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방생의 뜻을 담은 기도 의식으로 범회를 가질 예정이다. 종단에서는 이미 '생명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생명 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생명결사는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생명경시풍조를 바로잡고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벌이는 운동이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전 종무원 300여 명은 낙동강 낙단보 공사 현장에서 두 번째 1080배를 정진을 이어 간다. 같은 날 전국 사찰에서도 경북 상주시의 낙동강 경천대, 구미 해평습지, 경기도 여주군 강천보 인근 남한강 바위늪구비, 전남 담양군의 영산강 담양습지, 충남 공주시의 금강 끝마루 등 4대강 주변에서 동시에 범회를 할 예정이다. 생명·문화결사 실천의 첫 장이 될 낙단보 현장에는 어느새 불이 다가오고 있었다. 의성=홍다영 기자

“마에보살상 훼손 규명하라”

조계종, 의혹 관련 입장 발표

지난해 10월 낙동강 4대강 공사 현장인 낙단보 인근에서 발견된 마에보살좌상 훼손과 관련, 조계종은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마에보살상 훼손 경위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조계종은 문화부장 명의로 발표한 '낙단보 인근 마에보살 발견 의혹과 훼손 관련 입장'에서 “10월26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직접 현장 당시 현장에 함께 한 4대강 공사 관계자는 고의적인 훼손 의도는 없었으며 발견 경위 및 훼손 과정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상을 조사하여 사실 관계를 밝히기로 약속했다”며 “(그러나) 어제와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은 이미 마에부처님의 존재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현장 관계자들 또한 발표 2달 전인 8월에 이미 발견하였으며, 인근에 또 다른 마에부처님의 존재를 밝히고 있다”며 “4대강 현장관계자와 의성군청, 경상북도청, 문화재청은 서로 답합하여 종교지도자에게 거짓을 말하고 진실을 은폐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종단은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계 당국의 사실은 폐에 대해 엄중한 유감의 뜻을 전하며 훼손 경위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불교계가 납득할 수 있게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며 △종단 차원의 마에보살좌상 훼손 조사 실시 △4대강 공사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 방지 노력 등을 천명했다. 영태규 기자 che11@bulgyo.com

“5대 결사 지원하겠다”

총무원장 스님 신년하례 자리서 원로회의 의장 종산스님 '천명'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산스님이 종단의 민족문화수호 활동과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에 대해 지지 천명하고 종도들의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했다. 종산스님은 지난 8일 청주 보살사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예방을 받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로회의 의장 종산스님은 “현재 정부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부 요인과 공직자들이 불교를 폄하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런 점에서 총무원장 스님이 5대 결사를 진행하는 것은 봉암사 결사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으로 생각해 반갑고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종산스님은 “조계종 전 종도들이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함께 해야 한다”며 “5대 결사가 꽃 필 수 있도록 원로들도 힘써 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경인년 새

해를 맞아 신년하례차 원로회의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청주 보살사를 예방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원로 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5대 결사 운동의 원만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종산스님은 “종단에서 우리 원로들이 필요하다면 앞장서 일을 하겠다”며 “총무원장 스님의 5대 결사운동이 잘 회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재차 지지와 성원을 표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월26일 담화문을 통해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를 제안한 이래, 밀운스님과 월서스님, 진제스님 등 원로의원 스님들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잇따라 지지를 선언한 가운데서 나온 이날 종산스님의 말은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김희영 기자 hykim@bulgyo.com



종단의 민족문화수호 활동과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에 지지를 천명한 원로회의 의장 종산스님(우측)이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환담하고 있다.

법정스님 저서 공공시설에 기증

'맑고 향기롭게' 출판사와 협의키로

오는 28일 법정스님 임적 1주기 다례제를 앞두고 스님의 남은 저서들이 공공시설에 기증된다. 법정스님의 유지를 받드는 '맑고 향기롭게' (이사장 덕현스님)는 지난 1월30일 “스님의 책 가운데 팔고 남은 것들을 군부대와 교도소, 공공도서관 등 책을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에 신청을 받아 기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스님의 책을 출판한 출판사들은 공문을 보내 협조를 구하고 오는 3월말까지 기증절차 및 기증되고 남은 도서의 처리 등을 마무리 짓겠

다는 계획이다. 출판사 센터의 제안으로 이번 결정을 내린 '맑고 향기롭게' 측은 “책을 폐기하는 것보다는 한 권이라도 필요한 이들이 읽도록 하는 것이 스님의 유지를 진정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11일 임적한 법정스님은 “그동안 풀어놓은 말빛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겠다.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는 출간하지 말아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하정은 기자 tomato7@bulgyo.com

“자성(自省) 쇄신(刷新) 결사(結社)”를 적극 지지하며, 한국불교 희망과 감동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월 26일(수), 신년 담화문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처방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변화의 추진이 매우 어렵고 지난한 일이지만 사부대중의 지혜를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곧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며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자성과 쇄신 결사'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자성과 쇄신을 위해 '수행·문화·생명·나눔·평화결사'에 대해 불자들의 실천적 논의와 의지 결집을 위한 대중공사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총무원장 스님의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를 적극 지지하며,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한 실천적 논의와 의지결집에 교구본사가 적극 나서서 동참할 것을 결의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총무원장 스님 담화문을 사찰별로 게시하며, 각종 법문 시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를 종도들과 함께 전개할 것이며, 교구본사가 모범적으로 대중공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자성과 쇄신 결사를 바탕으로 종교차별 예방과 금지활동, 민족전통문화 수호를 위한 활동에 교구본사가 적극 앞장서서 전개할 것입니다.